



## 대한상공회의소, 재정위기 관련 국내 영향 설문조사

최 원 선임연구원

■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518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미국·EU 재정위기 관련 영향 등에 대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, 10월 24일 결과를 발표함.

- 미국·EU 재정위기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시기를 2012년 상반기로 예상한 기업이 전체의 56.9%로 가장 많았으며, 2011년 말이라는 응답은 31.3%, 2012년 하반기는 8.1%, 2013년 이후는 3.7% 순으로 조사됨.
- ‘미국·EU 재정위기로 인한 세계경제 불안이 이미 국내 실물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’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전체의 94.2%를 차지함.
- 국내경기 상황과 관련한 설문에서는 응답 기업의 66.6%가 ‘약간 어려워졌다’고 답하였으며, ‘이전과 비슷하다’와 ‘많이 어려워졌다’는 응답은 각각 19.7%, 9.8%로 나타남.
- 매출의 경우 50.8%에 해당하는 기업이 ‘감소했다’고 응답하였으며, ‘주문량과 영업이익이 줄었다’는 응답은 각각 54.5%, 59.0%를 차지함.
- 최근 전반적인 경영상황에 대해서는 ‘상반기와 비교하여 나빠졌다’는 응답이 57.9%로 나타났으며, 업종별로는 자동차·부품, 섬유·의류·신발, 가전제품, 정보통신기기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 모두에서 ‘경영상황이 나빠졌다’는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됨.
- 정부가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과제로 환율·금리 등 금융시장 안정을 41.3%, 원자재가 및 물가안정을 33.2%, 내수 활성화를 10.6%, 기업 투자여건 개선을 6.8%로 나타남.

■ 이번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대한상공회의소는 미국·EU 재정위기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내외 경제 둔화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기업은 위기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, 대내외 경제 여건과 경쟁기업 변화를 주시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함.

(제조업체 57% 재정위기 내년 상반기 본격 영향 등, 연합뉴스 등, 10/25)